

분양가 묶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평당1900만원...분양가 낮춰 제시

사업자 사업계획서 변경안 제출 용적률 상향 등 조건도 함께 제시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꼬여버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 책정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후분양 전환과 함께 평당 1900만원을 제시했다. 2000만원대였던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는 최근 사업 면적, 용적률, 세대수, 분양가 등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

원 시설 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 8990㎡, 용적률을 199.80%에서 212.15%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세대수는 분양의 경우 383세대로 계획했던 전용 면적 85㎡ 이하(34평)를 얹고 85㎡ 초과로만 1923세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는 85㎡ 이하가 50세대 늘어난 296세대, 애초 없던 85㎡ 초과 703세대로 계획했다.

분양가는 평당 1900만원, 임대 85㎡ 이하는 1350만원, 임대 85㎡ 초과는 1590만원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사업자는 애초 85㎡ 이하 1500만원, 85㎡ 초과 2046만원, 임대 85㎡ 이하 1350만원으로 분양가를 협의했으나, 정부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일부 분양가가 낮아지고, 후분양

으로 전환됐다.

사업자는 애초 예상한 2000만원대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19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비공원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대형 평수 확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와 사업자는 선분양이었던 사업도 후분양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분양가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후 분양 승인 신청 때 결정된다.

광주시는 사업자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추후 사업계획 변경안이 다시 제출되면 전문가에게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 시설 규모, 용도지역 등을 심의할 예정이 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광주 ACE Fair 'OTT포럼' 기조연설

고삼석(사진)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0 광주 ACE Fair' 부대행사로 진행된 '제1회 글로벌 OTT 산업 시장 전망 포럼' 행사에 참석해 'OTT, 콘텐츠산업 성장의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글로벌 OTT포럼은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OTT가 글로벌 미디어 & 콘텐츠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가는 가운데, 미국·일본·프랑스·대만의 OTT 전문가들이 참가해 각국 로컬 OTT사업자의 대응전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OTT 서비스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고삼석 전 상임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넷플



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빠른 성장은 문화적(콘텐츠) 다양성, 콘텐츠 시장의 경쟁, 콘텐츠 제작 생태계에 끼친 영향, 이용자 보호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국내 콘텐츠기업에게는 기회와 위기 양면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블루투어 비전 포럼이 4일 오후 여수시 웅천동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주철현·김희재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 관광 대응 방안 모색

전남도 '블루투어 비전 포럼'

전남도는 4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두번째 프로젝트인 '블루 투어'의 비전 확산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블루 투어 비전 포럼'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관광 전남 시대' 확립의 동력 확보와 전남 관광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 예술마루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주철현·김희재 국회의원, 김성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권오봉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남도 유튜브 채널인 '오픈전남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포럼은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관광벨트'를 비전으로, 전남의 블루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포럼 시작에 앞서 주철현·김희재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남해안권 신성장의 핵심 축이자, 대

한민국 경제 블루칩 전남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철 한국해양관광학회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블루 투어리즘, 남해안 관광'을 주제로 소규모 연안 크루즈와 마리나를 비롯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전남형 블루투어리즘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채동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섬 관광 활성화 방안',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 크루즈 산업 발전방향과 과제' 등을 주제로 섬관광 사업, 연안 크루즈 사업 등 남해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남 대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 관광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김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정·힐링 자원의 보고인 전남이 가장 전남다운 관광산업 모델 개발로 관광산업 재건을 선도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글로벌 관광, 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열쇠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투자협약 이행률 42%

실제 투자 연결 절반도 안돼

광주시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 가운데 실제 투자가 이뤄진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최근 5년간(2016~2020.9) 국내·외 기업 238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중 실제 투자한 기업은 101곳(42.4%)에 그쳤다. 82곳은 투자 예정이고 38곳은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다른 지역에 투자한 곳은 9개, 사업장이 폐쇄된 곳은 8개다. 예상 투자 규모는 1조 6970억 원이었으나, 실제 투자 금액은 5303억원(31.2%) 수준이다. 고용 예상 규모도 7676명이었지만, 1617명(21%)만 이뤄졌다.

장 의원은 "투자 협약이 실제 싹기를 위한 전제성 행정이 되고 있다"며 "협약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협약의 이행률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그린카진흥원 방만 운영 솜방망이 처벌 질타

광주시의회 행정감사

광주시 특정 감사 결과 도마에

논란을 빚는 광주시의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특정 감사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 대상이 됐다.

광주시의회 김광관 의원은 4일 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 담당 부서(자동차산업과)가 제기한 그린카진흥원의 '방만 운영'에 대해 감사위가 '가벼운 징계안'을 내놓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자동차산업과가 문제 제기하고 징계 요구한 배경 전 원장 관련 비위, 부적격자 채용 문제 등을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광관 의원은 "그린카진흥원에 명확히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맹목적인 직무 유기"라고 질타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자동차산업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린카진흥원이 적법하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감사했다. (자동차산업과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중복 감사여서 감사 대상이 아니었

다"며 그린카진흥원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 착수 이후 배 전 원장이 사직한 점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광석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니 원장이 사직했다. 공직자인데 사표를 받지 않고 감사해서 응당 징계 해야지, 왜 사표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김광관 의원은 "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는데 책임도 지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다"며 "감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데 의해 운용돼야 하는데 자의적 판단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과는 지난 7월 그린카진흥원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신분상 조치 6건, 환수 2건, 개선 14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흥원은 지난 8월 배 전 원장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고 일부 직원에 게 견책 결정만 하며 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감사를 벌였고 배 전 원장은 9월 사직했다. 배 전 원장의 후임으로는 그린카진흥원이 1대 주주로 참여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짓는 현대자동차 출신 간부가 선임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공정성 논란 광주시 이달의 공무원 제도 개선

최영환 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광주시가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이달의 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4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영환 의원의 개선 요구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와 올해 10월 논의를 거쳤으며 11월부터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는 문제가 있어 개선하겠다"면서 "사업 부서에서만 수상자가 나오다 보니 지원 부서에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감사위가 각 실·국에서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직자의 기본 의무인 봉사와 청렴 비중을 낮춰서 성과 위주의 평가만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적 조사를 본인이 하는 셉트 조사도 2건이나 있었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같은 업무와 공적으로 기간만 다르게 제출한 2명의 공직자가 선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8년 8월부터 '이달의 공무원'을 선정하고 공로패 수여, 포상금 지급, 인사 우대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28명이 선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 605-1115

| 대학원 | 과정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학과(M.Div.) | 60 |
| | | 성경연구학과(Th.M.) | 6 |
| | | 신학과(Ph.D.) | 6 |
| 일반대학원 | 박사 | 목회학과(D.Min.) | 2 |
| | | 유아교육학과(D.Ed.) | 5 |
| | | 사회복지학과(D.S.W.) | 6 |
| | | 상담심리치료학과(D.C.S.) | 7 |
| | | 코칭심리학과(D.Psy.) | 7 |
| |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5 |
| | |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 12 |
| |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10 |
| | | 신학과(Th.M.) | 14 |
| | | 유아교육학과(M.Ed.) | 8 |
| 상담치료대학원 | 석사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15 |
| |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10 |
| | | 코칭심리학과(M.Psy.) | 10 |
|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10 |
| | | 사회복지학과(M.S.W.) | 15 |
| 국제대학원 | 석사 | 평생교육학과(M.Ed.) | 10 |
| | | 한국어교육학과(M.Ed.) | 20 |
| 음악대학원 | 석사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8 |
| | | 음악학과(M.A.) | 6 |
| | | 실용음악학과(M.A.) | 6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 원서접수: 2020. 11. 17(화) ~ 25(수)
· 전형일: 2020. 11. 30(월) 오후 2시 30분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 전형일: 2020. 12. 11(금)/12(토)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